

#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鄭鎮肅

「출판저널」 발행인

“출판저널”이 이번 호로서 誌齡 100호를 맞이한다. 우리 出版界의 유일한 대변지·書評誌로서 「출판저널」이 창간된 것은 1987년 7월 20일이었다. 벌써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통권 100호 발행을 기리게 되었으니 그 感懷 무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기에 앞서 우리 출판계의 먼 앞날의 지평을 바라보고 싶다. 통권 100호 발행을 하나의 매듭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점에 선 다부진 마음으로 “출판저널” 내실화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출판계는 민주화의 변혁 속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출판사는 총 4,625개社로 늘어났고, 신간발행종수는 22,770종, 총 발행부수는 134,616,495부를 기록하고 있다. 독서인구도 크게 확장되어 판매부수 50만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가 속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 출판계는 바야흐로 출판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추세 속에서 앞으로 “출판저널”은 출판계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한국 출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대변지의 역할을 보다 알차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양서출판이라는 질적차원에서 냉철히 반성할 때 우리 출판계가 앞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또한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각에서 「출판저널」은 앞으로 양서출판을 격려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평 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다. 독자에게 소개해야 할 신간도서의 폭을 넓히고 嚴選하는 한편 보다 깊이있는 서평 활동을 경주함으로써 독자에게 良書情報를 전달하는 書評誌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지난날의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교류·협력의 역사적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교류의 하나로서 출판의 남북교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판이란 活字를 통한 정보와 사상의 전달이다. 따라서 출판교류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동안 남북을 가로막아온 이념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출판교류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전제요건의 해결과 방법론의 도구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출판계의 대변지인 「출판저널」은 앞으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판계의 要중론을 모아 모색하는 데 우리는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출판저널」 100호 발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出版界 여러분의 적극적인 協助와 有關機關의 支援, 書評편집위원 여러분의 勞苦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지도 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편집자의 말

통권100호 기념 특별증번호를 만들면서 두개의 특집을 마련했다. 그 하나는, 생산과 소비의 대중화, 내용의 탈이념화, 그리고 창작방법론상의 기계화 문제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의 우리 책문화를 점검해본 세편의 에세이 특집이다. 다른 하나는 앙케이트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가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유효한 관점과 메시지를 제공하는 책들을 설문조사로 가려 뽑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고전 60선’이다. 이밖에도 이번호에는 출판사 기획업무의 증추가 되는 편집위원제도 운용실태, 지역사회의 작은 도서관운동 현황 등을 집중취재한 기사를 비롯해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실었다. 통권100호를 기념하는 잔치상으로 이만하면 그렇게 큰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감히 믿는다. 독자와 필자 여러분의 변화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뉴스	2	저작권 침해사례 여전히 많다·외
에세이	4	승화인가 逆승화인가 — 장석주
	6	이념인가 이해인가 — 강철주
	8	글‘쓰기’와 글‘치기’ — 하재봉
앙케이트	10	미래를 위한 오늘의 고전 60선
서평	16	이해명 「개학기교육개혁연구」 — 이원호 신일철 외 「현대철학과 사회」 — 엄정식
	17	툼슨 「고대사회와 최초의 철학자들」 — 남경희 임정택 외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 백경남
	18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 송호근 김종철 외 「지역감정연구」 — 허석렬
	19	하이젠베르크 「현대물리학의 자연상」 — 이호연 김치수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 황현산
초점	20	출판사 편집위원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인터뷰	22	출판협회 새회장 선임된 김낙준씨
	23	출판협회 부회장 프로필
현장취재	24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운동의 현장을 가다
출판화제	26	책으로 되새기는 일제의 한반도침탈사
논문초	27	해방이후 철학책 출판의 예와 지금
이 책 그 사람	28	「컴퓨터는 깡통이다」 낸 이기성교수 「아사달」 펴낸 한석청씨
	29	「성운·성단산책」 펴낸 박승철씨 「바닷속은 외롭지 않다」 낸 김광택씨
컬러화보	30	‘책 아닌 책’의 무한한 상상력
문학사론	32	우리문단의 저력 중견작가들 장편소설 — 하응백
화제의 인물	34	올해의 애서가상 받은 정성구 교수
	35	「다라니경」 목판 복원한 오국진씨
해외출판	36	美서점가 힘쓰는 케네디 붐 — 이희재
세계의 책	38	美·蘇 연인의 국경 넘는 사랑
	40	독자서평
	42	화제의 신간
	44	신간안내
	52	200자 안내
	54	신간목록
	60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